10월
첫째 주

가정예배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

찬양해요

찬송가 199장

기도해요

가족 중 한 명이 대표기도해요

말씀을 읽어요

열왕기하 2:11-15

11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12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13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14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15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말씀 이해하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예언자인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와 헤어져 혼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떠날 때가 된 것을 안 엘리사는 끝까지 스승을 따라갔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스승보다 갑절이나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은 가운데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생애를 살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시대는 엘리야가 떠남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가정예배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계속해서 위대한 지도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도록 합시다.

좀 더 생각해 보기

1. 엘리야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갔는지, 아래의 빈칸을 채워 봅시다(11절).

   ▶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 불수레와 불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의 군대이다(왕하 6:17 참조).

2.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보낸 극도의 슬픔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12절)?

   ▶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

3. 엘리야는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신다는 것을 엘리사는 어떻게 알았습니까(13-14절)?

   ▶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 저리 □□□□ 엘리사가 □□□□

4. 엘리사를 지켜보고 있던 엘리야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한 까닭은 무엇입니까(15절)?

5.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획대로 엘리야를 데려가셨습니다. 엘리사는 슬픔을 가눌 길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주셨던 능력을 엘리사에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각자 느낀 점을 가족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기도해요

하나님,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는 정말 신비롭습니다. 엘리야를 떠나보내고 슬퍼하던 엘리사를 능력 있는 새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